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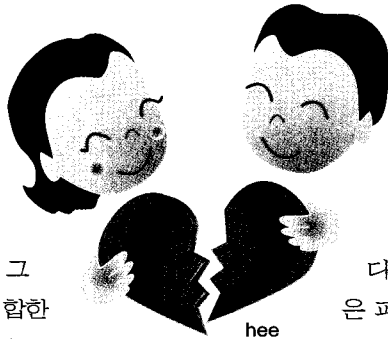


재혼의 문도 넓어졌지만 재이혼의 문도 넓어졌다

오재호/한국부부문화연구원장, KBS-2R “밤을 잊은 그대에게” MC

“이 남자는 혼인신고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나를 마치 식모 다루듯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 재산을 움켜 쥔 채 내 재산만 축내는 인간입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불과 2년 전에 정식으로 재혼한 중년부부의 이혼현장입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근년에 들어 재혼율도 높지만 재이혼율도 엄청 높아졌습니다. 대법원 이혼통계 자료에 의하면 재혼 3년 안에 재이혼한 부부가 자그마치 72%나 됩니다. 만일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그럭저럭 살다가 헤어지는 부부까지 합한다면 줄잡아 80%는 넘을 것입니다. 결국 재혼부부는 거의 백발백중 2~3년 안에 재이혼하는 모양인데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나누어 재혼의 모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남성은 재혼, 여성은 초혼인 <전통적 재혼>이 있습니다. 가장장적인 체취가 막강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비교적 성공률이 높습니다. 다만 “돈”이라는 게 사랑의 주축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둘째로 남녀 모두가 재혼인 <일반식 재혼>입니다. 전남편, 전처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관리가 마침내 문제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서로 법적인 혼인신고절차를 쌍방간에 무시합니다.

셋째로 여성은 재혼인데 남자는 초혼인 <여성 재혼>의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여자쪽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엄마 같은 포근함이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 3년 안에 남자의 외도로 막을 내리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재혼이 파장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여기 앞으로 재혼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수칙 네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재혼한 아내를 집안 일을 도와주는 가정부나,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모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는 내가 사랑하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둘째, 경제권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말하자면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것은 피차 단물만 빼먹겠다는 수작입니다.

마지막 넷째, 재산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만일 세상을 떠났을 땐 남은 배우자가 법적인 재산승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법적인 승계를 인정한다고 해도 별로 큰 혜택은 없습니다. 헌데 바로 이 경우 우리나라 다 큰자식들이 헤풀을 놓습니다.

크게 주목해야 할 사실은 재혼인 경우 2~3년이 고비라는 것 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여성잡지 <우먼 앤 홈> 99년 8월호에서는 재혼의 절대적인 성공비결을 이렇게 써 놓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키스하던 날” “두 사람이 최초로 한방을 쓰던 날”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충고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충고입니까? 그런데 한국의 재혼부부들에게 최초로 키스했던 날이 언제였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그 대답을 안 합니다. 그날을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녕 키스도 안 했던가 봅니다. 그러니 재이혼할 수밖에….